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스포츠 사회화가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2002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이태식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스포츠 사회화가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지 삼 업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이 태 식

이태식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6월 21일

주 심 체육학석사 이 태 웅 (인)

위 원 행정학박사 권 혁 동 (인)

위 원 이학 박사 지 삼 업 (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The influent of sports socialization on marine sports participation of the crippled people

Tae-Sik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ecognition of marine sports and participation by general public is increasing day by day. But physically changed still find difficult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Therefor by examining the participation of crippled people in marine sports I intend to show how one might increase their activity and widen the variety of program.

Information shows that man are retained in this program longer than woman. Those who have a average household income 1,500,000 won ~ 2,500,000 won have the highest satisfaction and have the professional occupation man has high satisfaaction in occupation on group. But generally demonstrate a low interest in marine sports. The good reason for the paticipation their is to assist with reablitation and overall heaith. Most people seem to feel nonconfident for participation and worry about the related cost. These physically challanged people have very bad social condition which necessitate improved the accessibility to marine sports center. These insititutions need to be more agreeable to assisting these indivisuals. There is a view that more leadership at the top is reqired if useful programs hor these people are to be implemented marine sports center members appeal to want the managemeent to place safety as foremost prioity.

Crippled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he participating marine sports demonstrated very low satisfaction. And they seem to feel very uncomfortable for the lack of the insititution and accessibility and they worry about the cost.

The rank of crippled people' faverate marine sports is a swimming, skin scuba, zet ski and yat. It is indicated that the recognition of marine sports being uncomfortable obstrut motivating marine sports. But they understand quite a lot of marine sports and those who have a high interest in it show a high frequency and retain it longer.

After all, in the view of marine sports to lead crippled people to take part in marine sports positively and continuously marine sports insititutions need to be more improved safetily. In addition to more leadership at the top is required. It is considered that those physically challanged people have not only social condition which support economic independece but also administral and systematical support.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시산업의 발달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 기형아 출산 등 각종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장애형태와 그 수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2001).[1)]

이렇게 증가하는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능력 향상과 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대회도 해를 거듭할수록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장애선수의 국제대회 참가빈도도 높아져 가고 있다(이선장 · 박철빈, 1991).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 이어 개최되는 부산 아 · 태 장애인 경기대회 역시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인식의 개선과 재활의지의 고취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스포츠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의미를 확인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으려는 속성을 해소시켜 준다. 이는 스포츠가 인격형성, 공격적 욕구의 발달 그리고 집단화합과 결속력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류재충 · 김동훈, 1994). 또한 규칙적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2001)에서 장애인구 및 출현율을 보면 전국의 장애인은 1,449.5천명으로 추정되어, 1995년의 1,053.5천명에 비해 396.0천명이 증가함.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은 3.90%로서 1995년의 2.35%에 비해서는 0.74%포인트 증가하며, 국제적으로도 일본 4.8%, 독일 8.4%, 호주 18.0%로서 2000년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 3.0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인 운동참여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용국, 1997).

장애인의 경우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 및 체력과 운동기능의 향상과 같은 신체적인 효과는 물론 다양한 지적·정서적 능력을 기르고 자신이 지켜야 할 규칙과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사회성이 증진되며, 나아가 개인과 집단의 성취감을 얻게되고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발달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사회적 소외와 고립을 극복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상인과 더불어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이종길, 1997).

신체적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은 장애원인과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운동양식이나 기능면에서도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이영희외, 1997). 그러므로 장애인의 건강과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해 스포츠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외국의 여러 선행연구들(Greife, 1973 ; Kosel, 1976 ; Schuele, 1976 ; Tews, 1976)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능력은 정상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생활능력이란 점에서(이종길, 1997)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은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움직임을 통해 학습하고, 즐거움을 경험하며, 일상생활과 놀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단련을 하고 폭넓은 사회성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그 기본이념이 있다(김승일외, 1992).

시대흐름에 따라 장애인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스포츠 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인지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김경숙외, 2000)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의 장으로서 해양스포츠는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백광외, 1999).

해양스포츠는 높은 스포츠적 가치를 비롯하여 모험심과 탐구정신을 길러주고 희생과 봉사정신을 배양해 주며 적극적인 사고력까지 지니게 해준다(지삼업, 1998).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이 자연·모험스포츠 선호경향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해양스포츠 동호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지삼업, 1998).

또한 해양스포츠는 선진국에서 날로 사랑 받고 있으며, 보통정도의 운동량으로 장시간 전신운동을 하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발달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건강 가치를 높여준다(지삼업, 1996).

더욱이 우리나라는 1945년을 축(軸)으로 볼 때 섬나라 아닌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양스포츠의 대중화와 다양화를 촉진하는 해양환경과 자연공간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지삼업, 1999), 최근 들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김유수외, 1989).

이와 같이 해양스포츠는 스포츠 사회화를 위한 훌륭한 조건들을 두루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들처럼 쉽게 친해질 수 있으며 행복의 견지에서 개인의 삶을 위해 에너지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충돌과 스트레스를 제거하며 건강과 기쁨을 향상시킨다(백광외. 1999).

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지체장애인에게 자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천연스포츠로서, 그리고 모험과 도전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재고와 함께 스포츠 사회화가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과 그들의 스포츠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달성,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체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은 해양스포츠 참여 실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사회화에 대한 의식구조는 어떠한가?
3.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스포츠잠수 : 간단한 보조용구, 또는 수중호흡기를 몸에 부착하고 물속에 잠수하는 형태로서 수중마스크·휜·스노클을 부착하고 잠수하는 「스노클 다이빙」(breath-hold diving)과 에쿼렁(aqualung-수중폐)을 메고 잠수하는 「스쿠버 다이빙」으로 구성되어 있다(일명; 스킨스쿠버).
2) 리스프랑(Lisfranc) 관절 : 전족부와 중족부 사이의 관절, 즉 족근중족 관절(tarsometatarsal joint).
3) 쇼파관절 : 한발의 양쪽 복사 뼈 사이에서 발목관절을 형성하는 거골과 주상골, 종골(발뒷꿈치 뼈)과 입방골(종골 바로 앞의 뼈) 사이

의 관절.

4. 연구의 제한점

스포츠 사회화가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부산 · 경남)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2) 본 연구에서는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장애발생 전 해양스포츠 참여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사회화의 개념

한 인간이 출생 직후의 인간동물(human animal)적 상태로부터 하나의 바람직한 사회성원인 인간(human being)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어떠한가를 이해할 때 이러한 과정을 학술상 “사회화”라고 부른다(장석우, 1969).

사회화란 인간 유기체가 출생 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태도, 이념, 행동유형을 타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학습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형성하고 여러 사회 집단에서의 그 신분에 상응하는 많은 역할을 지니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Roucek, Warren, 1951 ; 고영복, 1968) 사회화의 개념은 오래 전부터 많은 사회학자, 심리학자, 인류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져 왔으며 일생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임번장, 1994)

스포츠에서의 사회화는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집단의 성원이 되어 집단에 잘 적응하며 특정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를 획득하고 그 자신의 개성적인 특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송명섭, 1996). 또한 스포츠에 있어서 사회화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며 그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적(雙方向的)인 상호작용으로 보아야 한다(박영희외, 1992).

스포츠에로의 사회화란 스포츠에 참가하는 그 자체를 말한다. 스포츠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균등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스

포츠에로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란 하나의 사회체제인 스포츠 장면에서 학습된 기능, 특성, 가치, 태도, 지식 및 성향 등이 다른 사회현상으로 전이 또는 일반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박재영, 1999).

스포츠 참가는 스포츠 현상과 관련지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동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각 개인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일차적 참가이고, 둘째는 신체활동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지만 경기장에 가서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일상생활 중에 타인과 스포츠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TV나 라디오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보는 것 등을 포함하는 간접 참가, 즉 이차적 참가가 있다(윤공화외, 1999).

이와 같이 스포츠는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타 분야의 주요 사회생활 영역인 가족, 교육, 정치, 경제, 종교생활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Coakley, 1986 ; 임번장, 1994,). 스포츠는 현대사회의 각 부분에 깊이 침투되어 일상생활화 되어 있으며, 정치적 또는 경제적 체제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에서 사회의 변동 및 발전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스포츠 사회화란 “각 개인이 스포츠를 통해 집단적 또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가치, 신념, 태도 등을 타인과의 상호작용 하에서 자신의 지위와 상응한 역할을 습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임번장,1994). 즉 외로운 장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더불어 숲을 이루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스포츠 사화화」라고 볼 수 있다.

2. 지체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1999)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UN은 장애인의 권리 선언에서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부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을 자기자신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적 입장에서 장애인의 개념을 살펴볼 때 “장애인이란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이 낮아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확보하기가 곤란한 자”를 말한다(김승일, 1992).

장애의 종류에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1999).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지체장애인이란 골격, 근육, 신경 중 어느 하나의 일부분 또는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그 기능의 장애가 있을 때 대체로 운동 기능장애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도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때 이를 지체장애라 한다(강동원외, 1991).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 1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에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보건복지부, 1999)

2) 지체장애의 종류 및 기준[2)]

(1)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2) 지체장애인의 분류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시행령'의 장애인 분류기준을 따랐다.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 측만증이 있으며, 만곡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 후만증이 있으며, 만곡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3. 해양스포츠의 개념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여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로 종래의 나들이나 무의미한 휴식 등의 소극적 · 비활동적 · 수동적 형태의 여가에서 벗어나 지적이고 창조적인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추구하고, 보는 것에서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행할 수 있는 적극적 · 진취적 · 능동적인 여가 활동을 선호하고 있다(김문겸, 1993).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는 생활의 긴장으로부터 탈출하여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신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고 경쟁과 협동의 정신으로 민주적 인간성 확립에 기여한다(Zeigler, 1977). 또한 스포츠는 경쟁적이고, 인간의 신체적 활동이며, 제도화된 규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으로(박홍규외, 1992) 현대 사회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정신적, 신체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해양이란 바다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환경으로 자연적인 산물과 인공적인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바다, 해변, 수상, 해저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의 모든 형태를 해양스포츠라 말하며, 해양스포츠의 구분은 동력이나 무동력으로 해양이라는 환경적 특수성을 이용한 놀이와 스포츠를 포괄하는 개념을 갖는다(구우영, 1996). 이는 해양스포츠가 종래부터 해원(海員)분야를 비롯하여 관광학 분야에서 수상레저, 해양레저 혹은 해양성 레크레이션, 해양레포츠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옴으로써 일반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한 영역으로서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정체성 확립은 꼭 필요한 일이다(지삼업,1999).

오늘날 스포츠는 하나의 중요한 파생적 제도로서 존재한다. 특히 해양스포츠는 사람과 사람만의 경쟁이 아닌, 사람과 자연의 경쟁이기도 하며 여기에서 자연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정신도 함께 배양할 수 있는 호연지기의 장이 될 수 있다(백광외, 1999). 해양스포츠는 모험심과 탐구정신을 길러주고 희생과 봉사정신을 배양해 주며, 적극적인 사고력을 지니게 해준다(지삼업, 1996).

스포츠가 결국 생명력의 확인을 통한 삶의 새로운 활력을 다지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해양스포츠를 통한 이런 자연과의 부대낌 속에서의 생명력 확인은 인간의 삶을 더욱 생동감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지삼업, 1996). 따라서 해양스포츠는 「강과 바다 등 자연에서 동력과 무동력의 각종장비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물과 관련된 경쟁적(엘리트체육)·취미적(생활체육), 혹은 체계적·비체계적인 스포츠형 해양스포츠와 레저형 해양스포츠 활동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지삼업,1999)」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스포츠 사회화 상황과 해양스포츠

한 사회에 있어 사람들의 사고와 태도는 그 사회의 유력한 사회적 가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스포츠 또한 그것이 존재하는 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서 규정되고 그 문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형성되어 왔고 어떠한 사회나 전통적으로 함축적인 문화의 한 부분으로 고수되는 가치나 가치관이 있다(이정수, 1992).

가치나 가치관은 인간 경험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경험을 지각하고 조직하기 위한 추상적인 준거 체계를 제공하고, 행동방향의 선택이나 해석에 영향을 주는 동기-지각적인 태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말 할 수 있다(최영옥 외, 1990).

최근에 와서 스포츠가 복합적이고 다기능화 되어 그 발달의 속도가 가속화 되어있는 고도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성격형성,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활동은 개인의 품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장갑석, 1998).

사회화 상황은 스포츠 집단의 구조, 개인의 지위, 참여의 자발성과 사회화 관계의 본질성 등으로서 스포츠 역할 학습에 의미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박재영, 1999).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스포츠는 스포츠가 이상으로 하는 지·덕·체의 덕목을 더 많이 함축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사회화를 위한 조건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 스포츠 보다 오히려 체육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지삼업, 1999).

해양스포츠로의 사회화는 해양스포츠 참가를 전제로 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해양스포츠의 참가 기회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참가자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해양스포츠로의 사회화는 해양스포츠에 참가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지삼업, 1999). 또한 해양스포츠로의 사회화는 매우 복잡한 다양성을 갖기 때문에 명확한 해답을 얻기는 어려우나 해양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기본적으로 해양스포츠 활동 참가에 의한 결과나 성과이며, 해양스포츠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특정사회에서의 적응과 성공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가치나 태도 및 행동에 대한 학습의 내용이다(지삼업, 1999).

해양스포츠는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스포츠로 자연을 극복하는 승리감, 성취감 등과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정신적 보상의 경험이 모여진다면 해양스포츠의 사회화는 가속화되어질 것이며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1년 10월 현재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94,614명[3]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그 중 전용 시설들을 이용하는 부산·경남지역 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무작위 표본추출법(ram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1차 표집 대상은 354 (100.0%)명이었다. 그러나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비롯하여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것 등 32(9.0%)명을 제외한 322(91.0%)명을 대상으로 최종 통계처리 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스포츠 사회화 요인과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김기영(1997), 백창문(1999), 구우영(1996) 등이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 문항 중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문항을 일부 참고하는 가

3)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 등급별 유형별 등록현황에서 2001년 9월말현재 전국장애인 등록인원 1,114,259명 중 지체장애인은 677,593명으로 부산·경남에 등록된 지체장애인 숫자는 부산 48,456명, 경남 46,158명으로 나타남,

운데 본 연구자가 지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한 차례의 예비조사(pilot test)를 거쳐 최종 완성한 것이다.

예비조사는 부산광역시 소재 D의료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훈련을 위하여 방문하는 성인지체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지체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내용에 대하여는 일차 수정을 가하였다. 그 다음은 설문지의 내용과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다음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설문지 구성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립변인은 개인적 인식도, 해양스포츠 제반여건 등 2개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인으로는 해양스포츠 참여빈도(월 횟수), 기간(참여 기간)등 2개의 요인으로 해양스포츠 참여 정도를 설정하였다.

개인적 특성과 장애특성에 관한 요인 11문항, 개인 인식도 3문항, 해양스포츠 제반여건 4문항, 해양스포츠 참여 실태에 관한 5문항, 그리고 기타 여건에 관한 3문항 등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주요 구성지표 및 내용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설문지의 주요 구성 지표 및 내용

<표 1> 설문지의 주요 구성지표 및 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척도		문항수	문항번호
개인적 특성		1. 성별 2. 연령 3. 결혼유무 4. 교육수준 5. 직업 6. 수입 7. 주거환경	명목 비율 명목 서열 명목 서열 명목		1 1 1 1 1 1 1	
지체장애특성		1. 장애유형 2. 장애정도 3. 장애발생시기 4. 장애원인	명목 서열 명목 명목		1 1 1 1	
해양스포츠의 사회화 현황	개인인지도	1. 인식도 2. 관심도 3. 참여도	등간	5점 Likert	1 1 1	
	제반여건	4. 기반시설 5. 종합센터 6. 지도자 양성 7. 프로그램 개발	등간	5점 Likert	1 1 1 1	
해양스포츠 참여		1. 종목 수 2. 이용불편 3. 빈도 4. 기간 5. 효과	서열 명목 비율 비율 서열		1 1 1 1 1	
기타 문항		1. 위험성 2. 경제성 3. 사회적 여건	등간	5점 Likert		

2) 설문지의 타당도

설문지의 타당도는 <표 2>와 같다.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구성타당도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성타당도는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일련의 가설적 개념평가의 적합성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 해양스포츠 참여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요인Ⅰ	요인Ⅱ	공분산비(h^2)
개인의 인식도	- .319	**.723**	.625
개인의 관심도	- .502	**.591**	.602
개인이 알고 있는 해양 스포츠 종목수	- .370	**.628**	.531
해양스포츠 시설 필요성	**.755**	.179	.603
해양스포츠 시설 참여	**.773**	.126	.614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736**	.346	.661
해양스포츠 전문지도자의 필요성	**.750**	.364	.694
고유치	2.763	1.567	
분산%	39.472	22.382	
누적%	39.472	61.854	

3) 설문지의 신뢰도

조상대상의 인지적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지 조사는 비체계적이고 임의적인 오차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Allen, 1979)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지적 경험에 의존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설문지의 신뢰도를 측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 검사를 위하여 Cronbach'α방법을 이용하여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Cronbach'α는 문항 하나 하나를 독립된 별개의 검사로 간주하고,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해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제외시킴으로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채서일, 1995).

해양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3, 4>와 같다.

<표 3> 해양스포츠 참여의 신뢰도 계수

변인	문항제거시 척도 평균	문항제거시 척도변량	문항총점과의 상관관계	문항제거시 Cronbach' α
개인의 인식도	5.4348	5.4365	.4423	.4941
개인의 관심도	5.2298	5.6293	.4682	.4767
개인의 종목수	5.3975	3.7418	.4093	.5933
			개인 인지도 전체 Cronbach' α	.6120
시설 필요성	6.5466	6.7907	.5984	.7696
시설 참여의사	6.2795	7.8219	.6023	.7563
프로그램개발	6.6739	7.9151	.6575	.7336
지도자의필요성	6.7081	7.9893	.6268	.7466
			해양스포츠 전반 전체 Cronbach'α =	0.8007

<표 4> 전체문항의 신뢰도 계수

변인	문항제거시 척도 평균	문항제거시 척도변량	문항총점과의 상관관계	문항제거시 Cronbach' α
개인의 인식도	14.1708	14.1795	.1832	.4236
개인의 관심도	13.9658	15.5970	.0477	.4792
개인의 종목수	14.1335	13.6114	.0596	.5201
시설 필요성	14.5776	13.1357	.2406	.3949
시설 참여의사	14.3106	14.0154	.2454	.3965
프로그램개발	14.7050	12.9750	.4391	.3167
지도자의필요성	14.7391	13.2339	.3898	.3368
문항수 : 12		전체 Cronbach' α = 0.8928		

3.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재활전문병원,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지체장애인 협회 등을 방문하여 지체장애인 관련시설에서 활동하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게 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조사는 2001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 354(100.0%)매 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편중된 응답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32(9.0%)매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총 322(91.0%)매를 최종 통계처리 하였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구명하기 위해서 t-test와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사회화 현황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고,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 10.0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스포츠 사회화 요인과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의 관계 및 의식구조를 구명하기 위한 실험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적 특성이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해양스포츠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에 따른 분포를 보여준다.

남성 228명, 여성 94명등으로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 비(比)는 50대(114명)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그 다음은 30대(67명), 40대(65명), 20대(39명), 20대이하(37명) 등의 순(順)이었다.

<표 5> 성과 연령에 따른 응답자의 설문자 현황

		연령					
		20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전체
성별	남	21	30	47	44	86	228
	여	16	9	20	21	28	94
	전체	37	39	67	65	114	322

해양스포츠 참여 실태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남녀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에 대한 t-test

	성 별	평 균(±SD)	T	P
경험종목수	남	1.55(±0.90)	-0.761	0.448
	여	1.67(±0.81)		
프로그램의 만족도	남	2.26(±1.02)	-1.678	0.096
	여	2.58(±1.10)		
빈 도	남	1.54(±1.05)	-0.199	0.843
	여	1.58(±1.18)		
기 간	남	20.05(±20.53)	2.544	0.012
	여	11.26(±14.29)		
건강 및 생활 효과	남	2.17(±0.85)	0.630	0.529
	여	2.07(±0.80)		

경험한 해양스포츠의 수(數)는 평균이 남녀 각각 1.55, 1.67로 나타났고, t값이 -0.761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性)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05$)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여성이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2.26과 2.58로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답하였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p>0.05$). 해양스포츠 참여 빈도는 시즌(season) 중 월 2-3회로서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p>0.05$). 한편, 해양스포츠 참여 기간에 미치는 남녀간의 영향은 t값이 2.544로 나타나 남녀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가 훨씬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해양스포츠가 건강이나 생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남녀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표 7>은 연령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7> 연령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

	연 령	평 균(±SD)	F	P
참여종목	20세 이하	2.00(±0.74)	1.572	0.185
	20대	1.77(±1.28)		
	30대	1.57(±0.80)		
	40대	1.48(±0.59)		
	50대이상	1.38(±0.66)		
만족도	20세 이하	2.42(±0.74)	1.086	0.366
	20대	2.43(±1.28)		
	30대	2.50(±0.80)		
	40대	1.96(±0.59)		
	50대이상	2.38(±0.66)		
빈도	20세 이하	1.08(±0.29)	1.654	0.164
	20대	1.80(±1.40))		
	30대	1.74(±1.17)		
	40대	1.43(±1.16)		
	50대 이상	1.34(±0.60)		
기간	20세 이하	15.58(±10.49)	0.106	0.980
	20대	16.13(±18.57)		
	30대	18.57(±21.92)		
	40대	16.78(±19.05)		
	50대 이상	17.88(±19.83)		
건강 및 생활 효과	20세 이하	2.25(±1.21)	1.705	0.153
	20대	1.93(±0.58)		
	30대	2.07(±0.87)		
	40대	2.04(±0.71)		
	50대 이상	2.44(±0.88)		

<표 7>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령에 따른 참여종목 수는 20세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4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없었다($p > 0.05$). 참여빈도 또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p > 0.05$) 20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20세 이하 연령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해양스포츠 참여 기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5$), 건강이나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표 8>은 결혼 여부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에 대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8> 결혼 상태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

	결혼상태	평 균(±SD)	F	P
참여종목	미혼	1.54(±0.60)	9.404	0.000
	기혼무자녀	1.21(±0.42)		
	기혼자녀	1.51(±0.71)		
	이혼	3.13(±1.96)		
	사별	2.00(±1.10)		
만족도	미혼	2.44(±1.16	5.708	0.000
	기혼무자녀	2.21(±0.54)		
	기혼자녀	2.14(±0.88)		
	이혼	2.88(±1.46)		
	사별	4.00(±1.10)		
빈도	미혼	1.66(±1.24)	2.011	0.096
	기혼무자녀	1.53(±0.96)		
	기혼자녀	1.35(±0.891)		
	이혼	2.25(±1.75)		
	사별	2.17(±0.75)		
기간	미혼	16.90(±16.37)	0.411	0.800
	기혼무자녀	22.11(±25.38)		
	기혼자녀	16.92(±20.58)		
	이혼	14.75(±7.81)		
	사별	13.00(±9.44)		
건강 및 생활	미혼	1.90(±0.62)	1.212	0.309
	기혼무자녀	2.21(±0.79)		
	기혼자녀	2.25(±0.97)		
	이혼	2.13(±0.83)		
	사별	2.33(±0.52)		

참여종목 수는 이혼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유무(有無)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사별한 경우가 가장 높고, 기혼자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배우자 유무에 따라 그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참여빈도에서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p>0.05$), 기혼에 자녀를 둔 장애인이 가장 낮은 해양스포츠 참여빈도를 보였다. 해양스포츠 참여 기간은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p>0.05$), 기혼에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참여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건강이나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 9>는 월수입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낸 것이다.

월수입이 200-250만원인 응답자에서 참여 종목수가 가장 많았고 50만원 미만의 응답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월수입이 250-300만원인 응답자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월수입이 150-250만원인 응답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해양스포츠 참여빈도는 200-250만원인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만원 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참여기간은 월수입 100-150만원이 22.88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250-300만원, 300만원 이상 응답자가 각각 5.67, 7.57개월로서 짧게 나타났으나 월수입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월수입에 따른 건강이나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 9> **월수입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

	결 혼	평 균(±SD)	F	P
참여종목	50만원미만	1.36(±0.68)	1.288	0.296
	50-100만원	1.51(±0.56)		
	100-150만원	1.59(±1.27)		
	150-200만원	1.88(±0.89)		
	200-250만원	2.00(±0.67)		
	250-300만원	1.67(±0.58)		
	300만원이상	1.86(±1.07)		
만족도	50만원미만	2.50(±1.16)	2.487	0.026
	50-100만원	2.11(±0.72)		
	100-150만원	2.13(±0.75)		
	150-200만원	3.13(±1.63)		
	200-250만원	2.40(±1.17)		
	250-300만원	1.67(±0.58)		
	300만원이상	2.43(±0.53)		
빈도	50만원미만	1.25(±0.60)	1.832	0.097
	50-100만원	1.60(±1.29)		
	100-150만원	1.72(±1.33)		
	150-200만원	1.38(±0.50)		
	200-250만원	2.40(±1.51)		
	250-300만원	1.67(±0.58)		
	300만원이상	1.29(±0.49)		
기간	50만원미만	20.33(±19.59)	1.477	0.191
	50-100만원	12.54(±13.9)		
	100-150만원	22.88(±24.45)		
	150-200만원	17.25(±19.57)		
	200-250만원	16.00(±19.30)		
	250-300만원	5.67(±3.21)		
	300만원이상	7.57(±3.41)		

<표 9-1> 월수입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

건강 및 생활	50만원미만	2.25(±0.97)	1.539	0.170
	50-100만원	1.91(±0.61)		
	100-150만원	2.31(±0.90)		
	150-200만원	2.13(±0.50)		
	200-250만원	1.80(±0.42)		
	250-300만원	1.67(±1.15)		
	300만원이상	2.57(±1.40)		

<표 10>은 직업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에 대하여 일원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0> 직업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

	직 업	평 균(±SD)	F	P
참여종목	생산직	1.47(±0.52)	1.823	0.099
	서비스	1.54(±0.64)		
	사무직	1.64(±0.74)		
	학생	1.67(±1.00)		
	전문직	2.75(±0.50)		
	무직	1.45(±0.69)		
	기타	1.88(±1.67)		
만족도	생산직	2.27(±0.70)	6.243	0.000
	서비스	2.29(±0.66)		
	사무직	3.21(±1.25)		
	학생	2.89(±1.54)		
	전문직	4.25(±1.50)		
	무직	2.06(±0.89)		
	기타	2.06(±0.93)		

<표 10-1> 직업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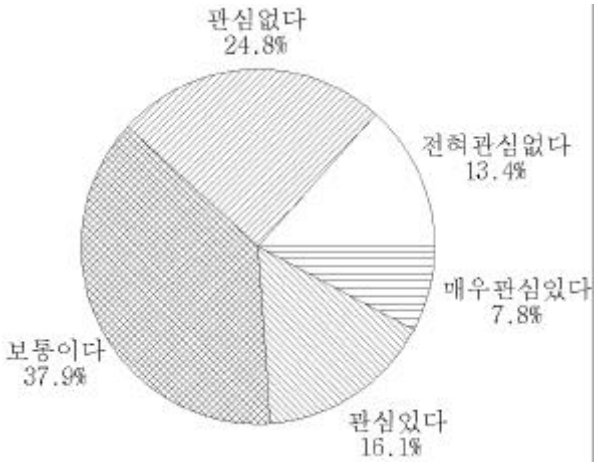
빈도	생산직	1.33(±1.05)	1.698	0.126
	서비스	1.39(±0.74)		
	사무직	2.29(±1.54)		
	학생	1.11(±0.33)		
	전문직	2.00(±0.00)		
	무직	1.53(±1.08)		
	기타	1.63(±1.36)		
기간	생산직	15.07(±17.57)	1.547	0.168
	서비스	16.46(±23.58)		
	사무직	11.86(± 9.36)		
	학생	34.89(±26.79)		
	전문직	19.50(±4.65)		
	무직	17.17(±19.19)		
	기타	15.88(±11.95)		
건강 및 생활	생산직	2.13(±1.06)	0.203	0.975
	서비스	2.036(±0.69)		
	사무직	2.21(±0.43)		
	학생	2.00(±0.71)		
	전문직	2.00(±0.00)		
	무직	2.21(±0.99)		
	기타	2.13(±0.81)		

직업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종목 수는 전문직 종사자가 가장 많은 종목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직자가 가장 적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무직, 기타 직업군에서 만족도가 낮고 전문직 응답자가 가장 높아 직업에 따른 만족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해양스포츠 참여빈도에서는 직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p>0.05) 학생에서 가장 낮았고, 사무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양스포츠 참여기간은 학생이 다른 직업군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별 편차가 매우 높아서 직업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밖에 건강이나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직업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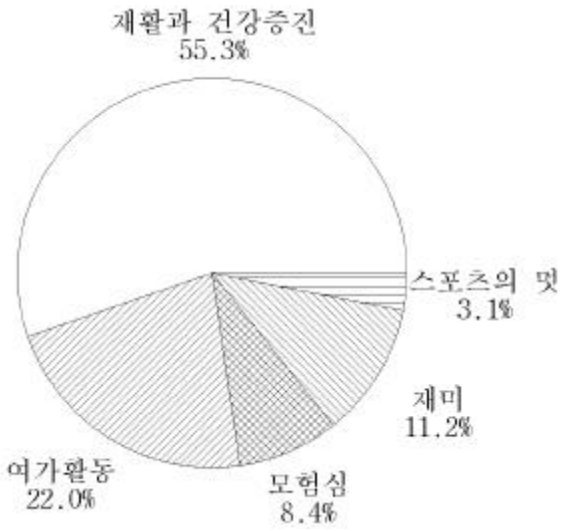
2.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의식 구조

<그림 1>은 지체장애인들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는 "전혀관심없다"가 13.4%, "관심없다"가 24.8%, "보통이다"가 37.9%로 "관심있다"고 답한 사람은 불과 23.9%로 조사되어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지체 장애인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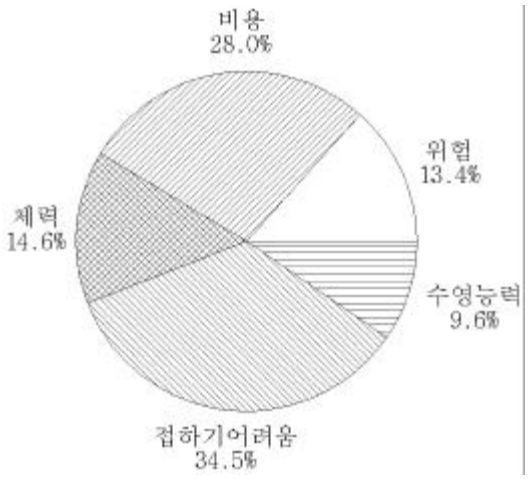
해양스포츠를 접하고 싶은 이유로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55.3%가 재활과 건강증진을 가장 우선된 이유로 꼽았고 여가활동이 22.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재미(11.2%), 모험심(8.4%), 스포츠의 멋(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지체 장애인들의 해양스포츠를 접하고 싶은 이유.

<그림 3>에서 해양스포츠를 멀리하는 이유로서 34.5%가 주변에서 해양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대답했고, 28.0%는 과다한 비용문제로 해양스포츠에 대해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체력에 한계를 느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가 각각 14.6, 13.4%로 나타났다. 특히 수영능력이 미숙하여가 9.6%나 응답함으로서 수영능력 여부가 해양스포츠를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직접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입으면 물에 뜨는 피폼(PE-form)제품을 비롯하여 각종 구명복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 미숙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불안은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해양스포츠계의 노력이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그림 3> 해양스포츠를 멀리하는 이유.

<그림 4>에서 지체장애인들이 느끼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위험도는 18.9%가 “매우 위험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31.4%는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해양스포츠에 대해서 과반수는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15.5%만이 위험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은 해양스포츠를 일반스포츠보다 더 많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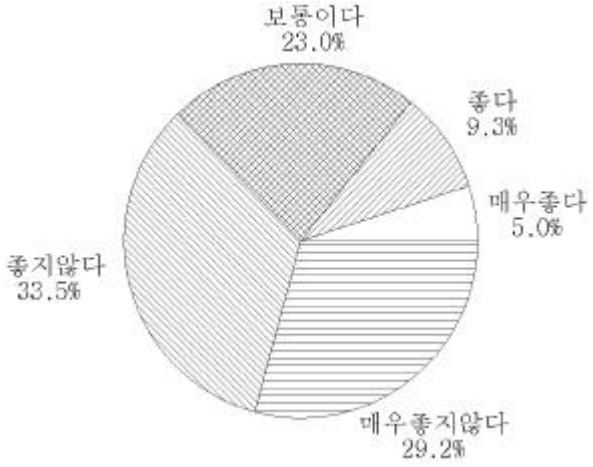
<그림 5>에서 해양스포츠가 위험한 이유로서 안전시설 미비가 24.2%, 안전의식 결여가 22.4%, 강과 바다라는 이유가 21.4%, 전문요원 부족이 18.9%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자가 13.0%로 나타났다.

<그림 4> 해양스포츠의 위험도. <그림 5> 해양스포츠가 위험한 이유

<그림 6>은 지체 장애인들이 느끼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보여준다. 44.4%는 “부담된다”고 답했고 29.5%는 “매우 부담된다”고 답하고 있는 가운데 단지 5.3%만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해양스포츠로의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경제적 부담.

<그림 7>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위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응답은 “좋지않다”가 33.5%, “매우 좋지않다”가 29.2%로서 62.7%가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14.3%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결국 지체장애인들은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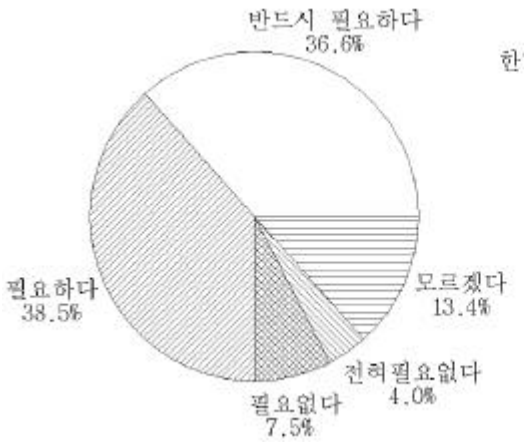


<그림 7> 해양스포츠 활동을 위한 사회적 여건.

<그림 8>에서 해양스포츠 종합센터, 보트 계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38.5%, “반드시 필요하다”가 36.6%로 나타나는 등 필요하다는 응답이 75.1%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없다는 대답은 불과 11.5%로 나타나 결국 많은 수의 지체장애인들은 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9>에서 각종 해양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21.7%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고 30.4%는 한번쯤 고려를, 그리고 35.5%는 참여할 것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13.3%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으로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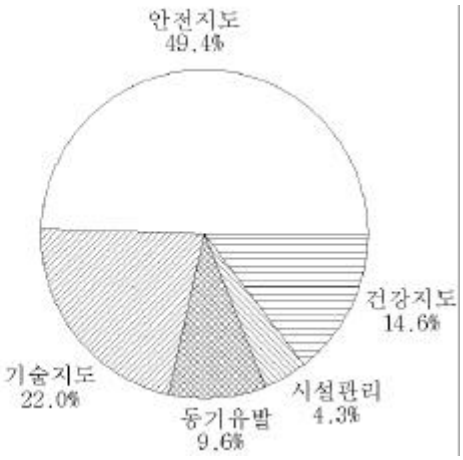


<그림 8> 해양스포츠 센터의 필요성

<그림 9> 해양스포츠 센터의 이용여부

<그림 10>에서 해양스포츠 지도자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33.9%는 “매우 필요하다”, 37.3%는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서 결국 71.2%는 장애인들을 크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지도자 양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분야 지도법 정립 필요성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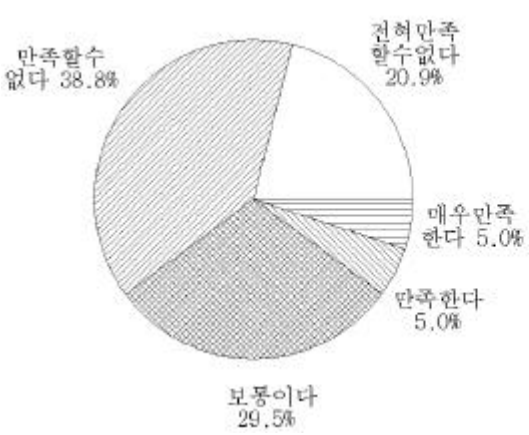
<그림 11>에서 이들 지도자의 책무로서 안전지도가 49.4%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지도가 22.0%, 건강지도 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동기유발과 시설관리가 각각 9.6%, 4.3%로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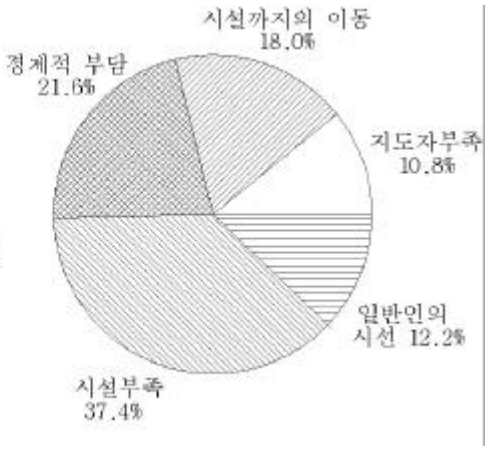
<그림 10> 지도자양성의 필요성. <그림 11> 해양스포츠 지도자의 책무

<그림 12>에서 지체 장애인들이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시 만족도는 "전혀 만족할 수 없다"가 20.9%, "만족할 수 없다"가 38.8%로서 결국 59.7%가 프로그램 참여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겨우 10%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은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그림 13>은 지체장애인들이 해양스포츠 참여시 느끼는 불편사항으로 시설부족 37.4%, 경제적 부담 21.6%, 시설까지의 이동 18.0%, 일반인의 편견적 시선 12.2%, 지도자 부족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부족만 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호주 시드니 본디(bondi)비치처럼 깊이 1m 내외의 인공 풀을 마련하여 장애인들도 부담 없이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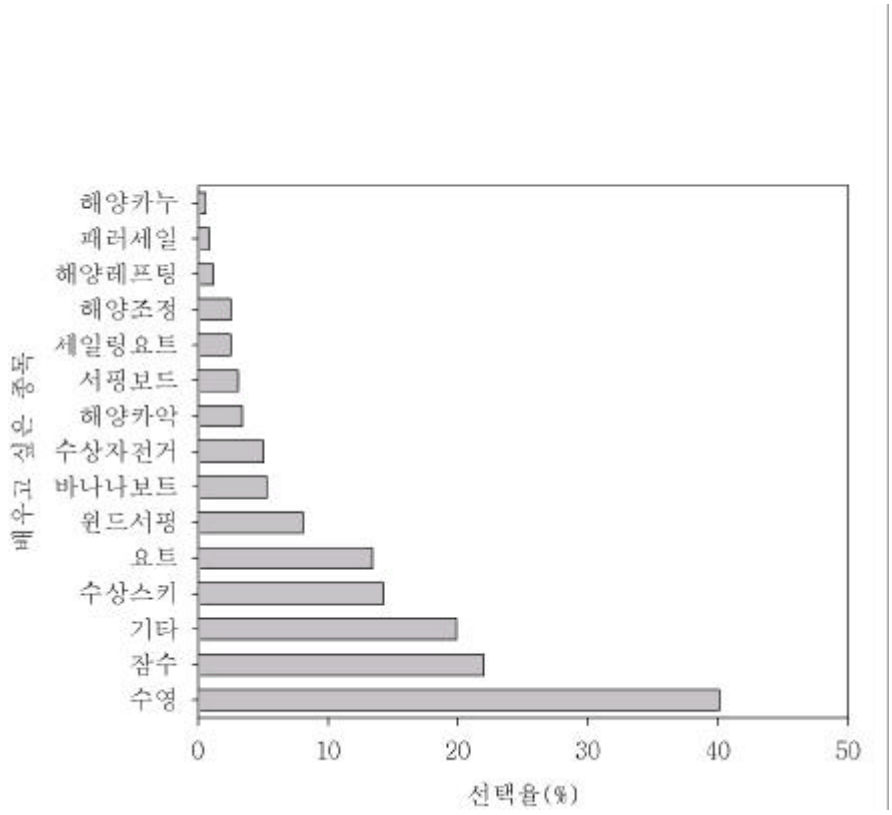
<그림 13> 해양스포츠 참여시 불편사항

<그림 14>에서 지체 장애인들이 해양스포츠 활동 후 본인의 건강이나 생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응답자 중 20.1%가 "매우 도움된다", 52.5%가 "도움 된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72.6%가 해양스포츠 활동이 개인과 일상(日常)생활에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4.4%는 해양스포츠 활동 후에도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해양스포츠 활동 후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효과 .

해양스포츠에서 직접 배우고 싶은 종목에 대한 선호도는 <그림 15>에서 바다수영(원영, 잠영)을 40.1%가 선택을 함으로서 가장 배우고 싶은 해양스포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포츠 잠수가 22.0%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수상스키(19.9%), 요트(14.3%), 윈드서핑(13.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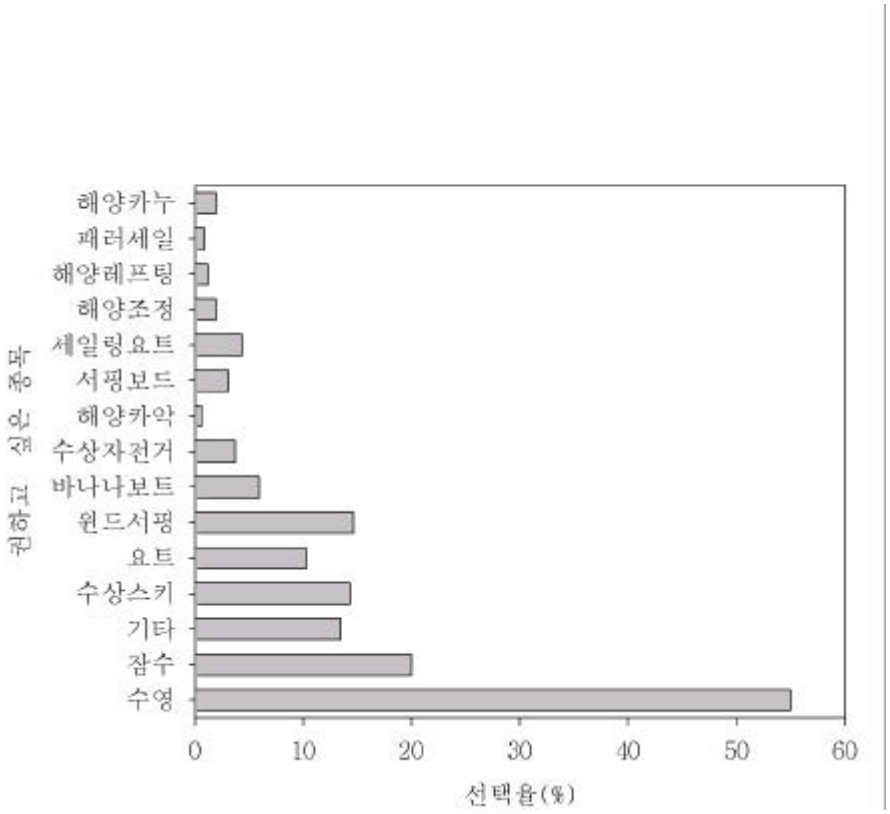
해양카누, 패러세일, 해양레프팅, 해양조정, 해양카악은 5%미만의 낮은 선택율을 보여서 관심도가 아주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적극적 홍보를 통한 해양스포츠 진흥에 나서야 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5> 지체 장애인이 배우고 싶은 해양스포츠 종목.

<그림 16>에서 해양스포츠 종목 중에서 권하고 싶은 종목에 대한 선호도는 바다수영(원영, 잠영)이 5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스포츠 잠수가 20.0%, 윈드서핑이 14.6%순으로 높게 나타나 배우고 싶은 종목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바다수영(원영, 잠영)이 권하고 싶은 종목에서는 보다 더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해양카누, 패러세일, 해양레프팅, 해양조정, 해양카약, 서핑보드에서도 5%미만의 낮은 선택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스포츠 진흥은 홍보를 통한 시민 동기 유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6> 지체 장애인이 권하고 싶은 해양스포츠 종목.

3.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표 11>에서 지체 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양스포츠 참여 빈도에 미치는 영향 중 위험성이 참여빈도 변량 8.2%(β=-0.287)를 나타내 다른 요인보다 위험성이 지체장애인들의 해양스포츠 저변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임을 보여주었다($p<0.05$). 건강과 생활의 효과(2.4%), 프로그램 만족도(2.4%), 관심도(2.0%), 경험종목 수(2.0%)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결국 회귀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위험할 것이라는 인식이 해양스포츠 참여빈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해양스포츠에 대해 높은 이해력과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많을수록 해양스포츠 참여 빈도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지체 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 빈도에 미치는 영향

	R	R^2	R^2 change	F	P	β
인식도	0.115	0.013	0.006	1.845	0.177	0.115
관심도	0.140	0.020	0.120	2.733	0.101	0.140
아는 종목수	0.145	0.021	0.014	2.960	0.088	0.145
위험성	0.287	0.082	0.076	12.287	0.001	-0.287
건강과 생활의 효과	0.156	0.024	0.017	3.421	0.067	-0.156
프로그램 만족도	0.115	0.024	0.017	3.359	0.069	0.155
프로그램 개발	0.079	0.006	-0.001	0.855	0.357	-0.079
지도자 필요	0.092	0.009	0.001	1.175	0.280	-0.092
시설의 필요성	0.098	0.010	0.002	1.328	0.251	-0.098
시설 이용	0.130	0.017	0.010	2.338	0.129	-0.130
여가와 건강	0.008	0.000	-0.007	0.009	0.925	-0.008
사회적 여건	0.124	0.015	0.008	2.130	0.147	-0.124
경제적 부담	0.057	0.003	-0.004	0.449	0.504	0.057
경험 종목수	0.141	0.020	0.013	2.771	0.098	-0.141

<표 12>에서 해양스포츠 참여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관심도, 인식도, 이해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4.9(β=0.222), 4.3(β=0.208), 3.6%(β=0.191)가 설명해 주듯이 해양스포츠의 참여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해양스포츠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고, 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 종목을 많이 이해

하고 있을수록 해양스포츠에 대한 참여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설 이용, 사회적 여건, 경제적 부담이 해양스포츠 참여기간에 비교적 높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항목들은 해양스포츠 참여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표 12> 지체 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 기간에 미치는 영향.

	R	R^2	R^2 change	F	P	β
인식도	0.208	0.043	0.036	6.182	0.014	0.208
관심도	0.222	0.049	0.042	7.118	0.009	0.222
아는 종목	0.191	0.036	0.029	5.162	0.025	0.191
위험성	0.080	0.006	-0.001	0.877	0.351	-0.080
건강과 생활의 효과	0.024	0.001	-0.007	0.076	0.783	-0.024
프로그램 만족도	0.038	0.001	-0.006	0.201	0.654	-0.038
프로그램 개발	0.010	0.000	-0.007	0.015	0.904	0.010
지도자 필요	0.054	0.003	-0.004	0.407	0.525	-0.054
시설의 필요성	0.059	0.003	-0.004	0.474	0.492	0.059
시설 이용	0.160	0.026	0.019	3.607	0.060	-0.160
사회적 여건	0.151	0.023	0.016	3.177	0.077	0.151
경제적 부담	0.147	0.022	0.015	3.045	0.083	-0.147
경험 종목수	0.008	0.000	-0.007	0.008	0.928	0.008

Ⅴ. 논의

본 연구는 스포츠 사회화 요인과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가설적 모형을 기초로 하여 개인적 특성이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의식 구조, 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가설적 명제를 검증한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하여 1) 개인적 특성이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2)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의식 구조, 3)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개인적 특성이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특성은 성, 연령, 결혼유무, 교육수준, 직업, 수입, 주거환경 등의 7개 개인적 특성변인이며, 이와 관련된 변인은 참여종목, 프로그램의 만족도, 빈도, 기간, 건강 및 생활효과이다. 관계분석 결과 해양스포츠 응답자들의 성별은 총 322명 중 228명이 남성이고, 94명이 여성이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의 장애발생 노출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 이용률 역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4] 50대 11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40대 67명, 30대 39명, 20대 37명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발생률 또한 인구 100명당 1995년의 2.35%에 비하여 2000년에는 3.09%로서 0.74%포인트 증가하여(보건복지부, 2001) 매년 장애인 발생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회활동이 왕성한 40-50대에 장애인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5] 본 연구의 성별 및 연령별 응답률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1).

성별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실태를 보면 경험종목 수, 프로그램의 만족도, 기간, 건강 및 효과면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빈도에서는 t값이 2.544로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기영(1997)의 연구결과에서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해양스포츠가 일반스포츠와는 다르게 개인적 특성변인 중의 하나인 성이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 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기영(1997)의 연구에서 참여정도에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性)이 일반체육 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에서도 장애인들의 여가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활동정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연령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을 보면 20대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모두에서 참여종목, 만족도, 빈도, 기간, 건강 및 생활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백창문, 1999)에 의하면 연령이

---

4) 2001년 9월말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전국 장애인 등급별 유형별 등록현황'을 보면 총 1,114,259명의 등록된 장애인 중 남성이 769,561명이고 여성이 344,69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남녀 성별 취업률을 보면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에서도 남자 43.45%, 여자 19.47%로 여자보다 남자의 사회활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장애유형별 장애인 출현율에서 보면 20대 96,228명, 30대 193,100명, 40대 242,577명, 50대 238,458명, 60대 284,108명」으로 사회 활동이 많을수록 장애발생률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40-50대에 장애인의 숫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증가함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일반체육 참여 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enyon과 McPherson(1974)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및 일반체육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지체장애인들이 해양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체육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유비(類比)되고 있다.

결혼여부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현황을 보면 참여종목, 만족도에서 이혼이나 사별한 장애인이 높게 나타나 채재성(1998)의 연구에서 배우자 유무가 일반체육 개입요인 및 일반체육 개입정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빈도에서는 이혼이나 사별한 장애인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또한 기간이나 건강 및 생활면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어 결혼이 해양스포츠 참여빈도, 기간, 건강 및 생활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채재성, 1998)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양스포츠가 일반스포츠와 달리 도전과 모험스포츠로 인식되면서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이 많은 해양스포츠 종목을 참여하고 모험과 도전심이 강하며 또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입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 현황을 보면 참여종목, 빈도, 기간, 건강 및 생활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백창문(1999)의 연구결과 가계소득이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만족도에서는 월수입이 150-200만원인 사람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 백창문(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해양스포츠가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사회 일반의 편견이며,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46.4%로 낮지만[6] 장

6)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장

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의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체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89.6만원인 점을[7] 고려한다면 소득이 높은 집단이 해양스포츠 참여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직업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현황 역시 참여종목, 빈도, 기간, 건강 및 생활 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만족도에서는 전문직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실업률 4.2%에 비하여 28.4%로 높은 것을 볼 수 있고[8], 취업분야에서도 농업과 단순노무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0%이며, 전문직 및 준 전문직은 6.3%로서[9]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지체장애인들의 해양스포츠 참여가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의 참여에 그치므로 하여 일반스포츠와 달리 그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장애인들의 여가문화개선과 스포츠 사회화에 따른 해양스포츠로의 참여 환경조성에 우리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2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0년 2/4분기 233.1만원)의 46.4%에 불과함.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120.29만원, 중소도시 118.25만원, 읍·면부 83.98만원으로 각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1.5%, 50.7%, 36.0%수준임. 가구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는 36.8만원이고, 2인 60.8만원, 3인 101.9만원, 4인 133.2만원, 5인 160.9만원, 6인 이상 가구 181.7만원」으로 나타났다.

7) 2001년 한국보건환경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에서 「장애유형별 소득을 보면 신장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101.0만원으로 가장 높고, 뇌병변장애인이 89.6만원, 지체장애인이 85.9만원」으로 나타났다.

8) 2001년 보건환경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장애인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은 28.4%로서 1995년의 27.4%에 비해 1%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4.2%에 비해 6.8배 높은 수준임」

9)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를 보면 입법공무원·관리자 0.3%, 전문가 2.4%, 기술공·준전문가 3.6%, 사무직 4.8%, 서비스·판매직 21.0%, 농·어업 25.6%, 기능원·관련기능근로자 11.7%, 장치·기계조작·조립원 6.5%, 단순노무직 23.4%로 보고되고 있음」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의식구조

지체장애인들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도에서 대체로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23.9%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인이 해양스포츠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52.64%(구우영, 1996)보다 낮은 것으로 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스포츠 환경조성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해양스포츠를 접하고 싶은 이유로는 재활과 건강증진(55.3%)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 김경숙·최원현(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장애인들이 일반스포츠 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에서도 재활과 건강유지가 가장 절실한 과제임을 알 수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해양스포츠 참여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스포츠를 하고싶지 않은 이유로 해양스포츠를 접하기 어렵다(34.5%)가 높게 나타났다. 위험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보통이다가 34.2%, 위험하다가 31.4%로 나타났으며, 위험한 이유로는 안전시설미비(24.2%), 안전의식결여(22.4), 강과 바다라는 이유(21.4)가 높게 나타나 해양스포츠에 대한 이해부족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에서 매우 필요하다(33.9%)와 필요하다(37.3%)가 71.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도자의 우선 책무에서도 안전지도(49.4%), 기술지도(22.0%), 건강지도(14.6%)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지체장애인들이 해양과 친화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해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행정적 지원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시설, 지도자 및 관리자들의 안전교육이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조건에 관한 항목들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5.3%로서 절대다수가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여건에서는 좋지않다 33.5%, 매우 좋지않다 29.2%로 62.7%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여 여건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해양스포츠시설의 필요성에서 필요하다 38.5%, 반드시 필요하다 36.6%로 71.5%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시설을 이용하겠느냐는 물음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가 7.1%, 6.2%로 13.3%만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우영(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장애인들 역시 해양스포츠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욕구가 높으며, 해양스포츠 시설의 다양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해양스포츠 참여경험이 있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항목에서는 매우 만족한다 5.0%, 만족한다 5.0%로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이 10%로 매우 낮았으며, 해양스포츠 참여시 불편사항으로 시설부족(37.4%)과 경제적인 부담(21.6%)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우영(1996)이 91.19%가 해양스포츠 종합센터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양스포츠시설의 확충과 누구나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해양스포츠 단체로 하여금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행정적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증진과 여가문화개선, 해양스포츠 활동을 위

하여는 범국가적으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은 해양스포츠 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이나 생활전반에 미친 영향에서 4.4%만이 효과가 없다고 답하여 지체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의 개선뿐만 아니라 재활이나 체력단련을 위하여도 해양스포츠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체장애인들의 해양스포츠 참여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해양스포츠 참여빈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며, 관심도와 이해하고 있는 종목 수, 경험한 종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양스포츠로의 참여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기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인식도, 위험도, 이해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이나 사회적 여건, 경제적인 비용 또한 해양스포츠 참여빈도에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양스포츠를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체험할수록 참여빈도나 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해양스포츠 시설과 사회적 여건조성이 지체장애인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이해할 수 있다.

Ⅵ. 결 론 및 제언

1. 결론

스포츠 사회화가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그들의 여가문화 개선과 장애인들을 위한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1년 10월 1일부터 30일 까지 총322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에서 여자(11.26개월)보다 남자(20.05개월)가 참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이 참여종목 수와 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이 150-250만원인 사람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직이 만족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의식 구조에서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스포츠를 하고싶은 이유로 재활과 건강증진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고, 해양스포츠를 회피하는 이유로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기회가 없다와 비용문제, 위험 순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들이 느끼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위험도에서는 소수만이 위험하지 않다고 답하여 대부분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스포츠 센터의 필요성과 시설이 갖추어 진다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도자 양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지도자의 책무는 안전지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스포츠 참여경험이 있는 지체장애인에 있어서는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편사항으로는 시설부족, 경제적 부담, 시설까지의 이동거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스포츠 참여 후 본인의 건강이나 생활전반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해양스포츠는 수영(원영,잠영), 스포츠잠수, 수상스키, 요트 순으로 나타났고 권하고 싶은 종목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셋째, 지체장애인들의 해양스포츠 참여 빈도와 참여기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해양스포츠로의 동기유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목되고 있고, 해양스포츠에 대하여 많이 이해하고 있으며, 관심도가 높을수록 빈도와 참여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스포츠 사회화 관점에서 지체장애인으로 하여금 해양스포츠활동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체장애인에게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전한 해양스포츠 시설의 설치와 전문지도자 양성에 따른 지도법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하고 다양하며, 재활과 생활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를 생활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양스포츠 사회화 상황을 국내 처음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심신장애, 정신지체등 장애의 종류에 따른 후속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동원, 송윤석, 지체부자유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도 연구, 체육과학논총 제4호, 1991, pp. 7-22.

2) 고영복, 사회심리학, 서울;민조사, 1968.

3) 구우영,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부산 해양스포츠 발전방안, 사회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제3호. 제6권. 1996, pp5-16.

4) 권혁동, 우리나라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의 실태와 그 개선 방안, 부경대학교 논문집 제4권 1, 1999, pp211-225.

5) 김경숙, 최원현, 장애인 생활체육의 실시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조사분석. 교양교육논문집. 2000. 제5호, 2000, pp.71-85.

6) 김기영, 스포츠 사회화 요인과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8호, 1997, pp.317-334.

7) 김문겸, 여가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3.

8) 김승일, 김대광, 사회체육에서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논집 제5호, 1992, pp.25-33.

9) 김용국, 지체부자유학생의 운동참가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0) 김의수, 오광진, 지체 부자유인의 스포츠 센타 이용이 생활체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체육연구소논집 제18권 제2호, 1997, pp.23-34.

11) 류재충, 김동훈, 일반성인 남·여의 스포츠 사회화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 논집, 제7호, 1994, pp.147-170.

12) 박영희, 육조영, 스포츠와 사회화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Vol.15 No.1, 1992, pp.45-58.

13) 박재영, 수상스포츠 참가자의 스포츠 사회화 요인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4) 박홍규외 2인 스포츠 사회학, 서울;대경출판사, 1992.

15) 백광, 남동현,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의 상품화에 관한 소고, "The 1999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1999.

16) 백광, 남동현, 해양스포츠의 새로운 인식과 그 필요성에 대한 담론, 건양논집, No7, 1999, pp.47-58.

17) 백창문, 스포츠 사회화 상황요인이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8)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팀, 2001.

19)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시행령, 대통령령 제 16682호,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별표 1, 1999.

20)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법 법률 제 5931호, 제1장 제2조(장애인의 정의), 1999.

21) 서울장애자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장애의 개념, 서울장애자 올림픽 조직위원회, 1988, p.54.

22) 송명섭, 성인들의 스포츠 사회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충주산업 대학교 논문집 제31권 1호, 1996, pp.121-135.

23) 윤공화, 오주훈, 스포츠 참가가 스포츠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경일대학교 논문집, 1999, pp.55-60.

24) 이상우, 강신범, 김유수.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개념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1989.

25) 이선장, 박철빈, 장기간의 운동이 시각 및 척수장애인의 혈액 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한국체육대학교 부속 체육과학 연구소논문집 Vol.l10. No.1. 1991, pp.191-204,

26) 이영희, 김종성, 박종진, 지체장애인의 상업스포츠시설 이용에 관한 만족도. 충북대학교 평생체육 연구소 논문집, Vol.9 No.1. 1997.

27) 이정수, 카누선수들의 스포츠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Vol.15. No.1, 1992, pp101-111.

28) 이종길, 정신지체아의 집단 스포츠 활동이 사회적응 행동발달에 미치는효과, 신진교수연구과제(1997-003-I00019), 1997.

29) 임번장, 스포츠사회학 개론, 동화문화사, 1994. pp.261-301

30) 장갑석, 이정수, 스포츠 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Vol.21.No.1, 1998, pp.103-114.

31) 장석우, 인간의 사회화, 홍익대학교 홍익논집, Vol. 1. No. 1, 1969, pp.45-68.

32) 지삼업, 내일의 파도를 향하여, 해원출판사, 1996.

33) 지삼업, 부산지역의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논문집 제2권 제2호, 1996, pp.41-59.

34) 지삼업, 한국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한 제도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35) 지삼업, 한국해양스포츠활성화 방안 모색, 부경대학교 논문집 제3권 제2호. 1998, pp.39-55.

36) **지삼업**, **해양스포츠 자원론**, **해원출판사**, 1999.

37) **지삼업**, 21**세기 해양대국 건설의 방법모색**(**해양스포츠의 기반화 시론**),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1998, pp34-38.

38)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학연사**, 1995.

39) **채재성**, **성인의 스포츠사회화 경험과 생활체육 참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40) **최영옥**, **이병두**, **수영선수의 스포츠 가치관 연구**, **한국체육대학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제**9**권**1**호**, 1990.

41)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대명사**. 1995.

42) Allen, M. J, & Yen, W. M. Introduction to measurement theory. Monterey, CA: Brooks & Cole, 1979.

43) Coakley, J. J. Sport in society : Issues and controversies. St Louis, MI : Times Mirror/Mosby College Publishing, 1986.

44) Greife, T. Koordinationsuebungen mit hoergeschoedigten, geistigbehinderet Kindern. Lebenshilfe. Marburg, 1973, pp.227-235.

45) J. S. Roucek & R. L. Warren, Sociology, 1951.

46) Kenyon, G. S., & McPherson, B. D. Becoming involved in physical activity and sport : A process of socialization. In G. L. Rarick(ed.), Physical activity :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New York : Academic Press. 1974.

47) Kosel, H.(1976). Freizeitaspekte bei der gesellschaftlichen International Behinderter Bericht ueber den 26. Kongress der

Dt. Vereinigung f. die Rehabilitation Behinderter e.V. in Wildbad, Behind, Kinder Kettwig, 1974, 13. pp.47-50.

48) Schuele, K. Untersuchungen zue Epidemiologie zum Behinderungs und Rehabilitationsbedarf bei Spinabifieda. Koeln, Dt. Sportochschule, Diss, 1976.

49) Tews, H. P. Sport in der Rehabilitation Behinderter. Deutscher Sportbund(Hrsg.), Sport fuer Behinderte. 1976, pp.16-50.

50) Zeigler, E. 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Philosophy (Pretice-Hall : International Inc), pp27-34,

부록

설 문 지

스포츠 사회화가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사회화가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스포츠 사회화가 지체장애인의 해양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책을 모색하기 위한 체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컴퓨터로 통계 처리되어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9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태 식 올림

Ⅰ. 일반사항

다음 물음은 본인의 개인적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문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문 2. 귀하여 연령은?

① 20세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문 3. 귀하의 혼인관계는?

① 미혼 ② 기혼(자녀 없음) ③ 기혼(자녀 있음)
④ 이혼 ⑤ 사별 ⑥ 기타( )

문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무학 (국문해독) ② 초등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⑥ 대졸 ⑦ 대학원

문 5. 귀하께서는 현재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① 생산직 ② 서비스직 ③ 사무직 ④ 학생
⑤ 전문직(교사, 의사, 변호사 등) ⑥ 무직 ⑦ 기타

문 6. 귀하의 한달 평균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50만원 미만 ② 50 100만원 미만 ③ 100 150만원 미만

④ 150 200만원 미만 ⑤ 200 250만원 미만 ⑥ 250 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문 7. 귀하께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① 재활원 ② 복지시설 ③ 자기집

④ 기숙사(회사, 공장) ⑤ 병원 ⑥ 기타( )

문 8. 귀하의 장애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뇌성마비 ② 척수장애 ③ 절단장애

④ 소아마비 ⑤ 기 형 ⑥ 뇌졸중후유장애

⑦ 기타장애( )

문 9. 귀하의 장애인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장애등급은 몇 급입니까?

( ) 급

문 10. 귀하의 장해발생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선천적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50대이후

Ⅱ. 해양스포츠 참여 실태

다음 물음은 귀하의 해양스포츠 참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께서는 해양스포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모르겠다. ② 모르겠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알고 있다. ⑤ 잘 알고있다.

문2) 귀하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관심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 있다 ⑤ 매우 관심 있다.

문3) 귀하께서 알고 있는 해양스포츠는 몇 종류입니까?

① 세일링 요트 ② 수상스키 ③ 페러세일 ④ 수상오토바이 ⑤ 서핑보드 ⑥ 바나나보트 ⑦ 윈드서핑 ⑧ 해양카약 ⑨ 해양조정 ⑩ 해양카누 ⑪ 수상자전거 ⑫ 바다수영(원영,잠영) ⑬ 스포츠 잠수(스킨스쿠버) ⑭ 해양레프팅 ⑮ 기타

① 1 2 ② 3 4 ③ 5 6 ④ 7 8

⑤ 9 10 ⑥ 10종목이상

문4) 귀하께서 앞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 해양스포츠가 있다면 어떤 종류입니까?

① 세일링 보트 ② 수상스키 ③ 페러세일 ④ 수상 오토바이

⑤ 서핑보드 ⑥ 바나나보트 ⑦ 윈드서핑 ⑧ 해양카약

⑨ 해양조정 ⑩ 해양카누 ⑪ 수상자전거 ⑫ 수영(원영,잠영)

⑬ 스포츠 잠수(스킨스쿠버) ⑭ 해양레프팅 ⑮ 기타

문5) 해양스포츠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위험하지 않다. ② 위험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위험하다. ⑤ 매우 위험하다.

문6) 해양스포츠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안전시설 미비 ② 전문요원 부족 ③ 안전의식 결여

④ 강과 바다에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⑤ 기타

문7)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② 부담이 될 것이다. ③ 보통일 것이다.

④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8) 장애인들의 해양스포츠 활동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다. ⑤ 대단히 나쁘다.

문9) 해양스포츠가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건강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은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10)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해양스포츠 종합센터, 보트 계류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수영 요트장과 같은 종합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② 수영 요트장과 같은 종합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문11) 귀하께서는 해양스포츠 종합센터가 있다면 해양스포츠를 하시겠습니까?

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② 한번쯤 참여하여 보겠다.

③ 고려하여 보겠다. ④ 참여하지 않겠다. ⑤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문12) 귀하께서 해양스포츠를 접하고 싶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재활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② 레져활동(여가생활)을 위하여

③ 모험심(새로운 경험)을 위하여 ④ 재미있을 것 같아서

⑤ 스포츠로 멋있을 것 같아서

문13) 해양스포츠를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위험 할 것 같아서(해양에 대한 공포심) ②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③ 체력이 부족해서 ④ 가까이 접할 수 없어서 ⑤ 수영 능력이 없어서

문14) 귀하께서 친구에게 가장 권유하고 싶은 해양스포츠가 있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① 세일링 요트 ② 수상스키 ③ 페러세일 ④ 수상오토바이
⑤ 서핑보드 ⑥ 바나나보트 ⑦ 윈드서핑 ⑧ 해양카약
⑨ 해양조정 ⑩ 해양카누 ⑪ 수상자전거 ⑫ 수영(원영,잠영)
⑬ 스포츠 잠수(스킨스쿠버) ⑭ 해양레프팅 ⑮ 기타

문15)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도자 양성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④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16) 해양스포츠 전문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우선 책무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안전지도 ② 기술지도 ③ 동기유발 ④ 시설관리 ⑤ 건강지도

문17) 장애인들의 해양스포츠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 없다.

문18) 귀하께서 체험해본 해양스포츠 종류가 있다면 몇 종류입니까?

(해양스포츠를 체험하지 않으신 분은 '18-24' 설문에 답하지 마세요.)

① 세일링 요트	② 수상스키	③ 페러세일	④ 수상오토바이
⑤ 서핑보드	⑥ 바나나보트	⑦ 윈드서핑	⑧ 해양카약
⑨ 해양조정	⑩ 해양카누	⑪ 수상자전거	⑫ 바다수영(원영,잠영)
⑬ 스포츠 잠수(스킨스쿠버)		⑭ 해양레프팅	⑮ 기타

① 1 2 ② 3 4 ③ 5 6 ④ 7 8 ⑤ 9 10 ⑥ 10종목이상

문19)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만족할 수 없다. ② 만족할 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대단히 만족한다.

문20) 귀하께서 해양스포츠 참여시 가장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① 지도자의 부족 ② 시설까지의 이동 ③ 경제적인 어려움

④ 해양스포츠 시설의 부족 ⑤ 일반인의 시선

문21) 귀하께서는 시즌(season, 5월-10월)중 월 몇 회 정도의 해양스포츠를 하십니까?

① 1 2 ② 3 4 ③ 5 6 ④ 7 8 ⑤ 9 10

문22) 귀하께서 해양스포츠에 참여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 ) 개월

문23) 귀하께서 해양스포츠 활동 후 본인의 건강이나 생활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안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문24) 귀하께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① 가족 ② 선후배 ③ 교사

④ 자원봉사자 ⑤ 동호회 회원 ⑥ 기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